

우리 협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Hoping for a New beginning for New President
while thinking of our(KIRA) Future!



신춘규 | Shin, Chun-gyu, KIRA/AIA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미 오하이오주립대 건축, 도시계획 석사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분과 이사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 건축사협회가 있고 건축가협회가 있고 또 새건축사협의회가 있다. 건축사가 있고 건축가가 있다. 가협회보다 5년을 늦게 시작한 덕분에 빼앗긴 것도 많다. 또 제도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도 많다. 지금도 상처투성이 뿐이고 쉽게 풀릴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건설에 중점을 둔 국토해양부에 등록이 된 우리는 문화계에서 찬밥이 되는 것을 피할 수도 없다. 또한 외부로는 정책적으로 그동안 건설과 개발에 초점을 두어 총력을 다해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자부심이 가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국민총소득 등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자부심 속에서도 문화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그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 협회가 가야할 방향은 진정 어떤 것일까? 참 쉽지만은 않다. 오래전 도를 닦은 약사친구가 한 말이 항상 가슴에 남는다. “약은 정말 아파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복용하는 것이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파온 기간만큼 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야 하는 기간 동안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또한 빠른 치유를 원하기 때문에 약을 써서 무리를 하지, 돌아가는 동안의 고통을 참고 넘기고 나면 몸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우리도 불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목표를 위해서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아프더라도 길게 돌아가며 아픔을 참을 수 있는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고통스럽게 돌아가서 우리 후배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개발 논리에서 떠나 지식문화로서의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시대로의 패러다임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가 건축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건축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존경이 궁극적으로 보상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건축은 진정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그 자산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생존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제도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눈앞에 보이는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 그러면서 더 큰 것들을 잃어왔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우리 협회가 진정 사회를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져갈 것이라고 본다. 반복되어온 파행적인 주택정책에 대해, 신도시정책에 대해 한 번도 우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 본적이 없다.

이제 협회는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사회적 리더들을 모아 사회에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회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강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르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해 고갈된 국내시장을 넘어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선진국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보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고 회원들이 쉽게 진출이 가능하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내적으로는 회원들의 피부에 닿는 일들을 했으면 한다. 강한 협회가 제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비회원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냄으로써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계속교육의 제공과 출판사업의 다양화, 협회회관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등 회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발전시켰으면 한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한 명의 회장이 협회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참된 리더들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목표를 잡고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성숙하고 꾸준하게 진전할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협회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건축이 지식문화로서 재인식되고 우리가 존경받는 날을 그려본다. ■